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8월 2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기도와 믿음 >

마가복음 11:24 / 새찬송가 400 (통일 463) 험한 시험 물 속에서

1. 진정한 기도는 계속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운 사무엘은 그들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삼상12:23). 계명을 어기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죄라면 기도를 쉬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입니다.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집 나갔다가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처럼 죄악도 용서받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해 주인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았습니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 오해한 것입니다. 그 종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마25:30).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이어지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갈4:6).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됩니다(골4:2). ‘기도에 감사함으로’라는 말씀은 응답을 받아서 기도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때문에 기도 그 자체에 감사한 것입니다.

2.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진화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자발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에 머물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를 즐거워하며 기도하셨습니다(눅5:15,16).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셨습니다. 벳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막6:45,46).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눅22:39,40). 그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3. 진정한 기도는 그 응답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막11:24). 이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믿으려 하는 믿음은 있지만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막9:24).

이런 믿음은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이 믿음을 주시면 그 기도의 응답이 저절로 믿어집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롬8:26,27).

따라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즉 성령이 주신 영감을 좇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정한 기도입니다(엡6:18).

< 적용 & 실천 >

응답이 없어서 혹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또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